

# 23 바벨탑

## Chapter

창 11장

은혜찬송 195장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 11장 (예수 이름 높이세)

### 오늘 배울



## 말씀

1. 하나님 없이 인간을 높이고, 인간끼리 하나 되려는 노력은 잘못임을 압니다.
2. 하나님께 범죄하면 축복을 상실하게 되지만 순종하면 다시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 마음 열기



인터넷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려운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몇 가지 적어 보세요.
2. 내 주변에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대해주고 싶습니까?
3. 만일 인종이나 언어, 문화가 하나라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서 기록해 봅시다.



## 말씀을 이해하기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가지의 언어와 다양한 인종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언어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진화의 산물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즉 동물적인 괴성에서 점점 발전하여 문법 체계를 갖춘 세련된 말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원래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물론 인종도 하나였지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언어와 인종이라는 큰 축복을 악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이로 인해 언어와 족속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니므롯’이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연합하였습니다. “땅에 편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큰 성과 도시를 건설하여 흠어지지 않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성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잘못된 노력은 좌절되고 그들은 흠어져 교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족속들과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불순종 때문에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족속이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 16:5)

Everyone proud in heart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Though they join forces, none will go unpunished. (Pr 16:5)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 1) 창 11:6~9
  - 2) 행 2:1~13
  - 3) 엡 4:3~6
2. 로마서 15장 5~7절을 읽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오해 없이, 진정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성경은 천지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큰 축복들을 인간이 범죄하여 상실하였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에덴동산에서의 범죄로 사망과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노아 시대, 범죄로 좋은 자연 환경과 장수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하나였던 인종과 언어의 축복 또한 상실했습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상실한 축복은 혹시 없는지 생각하고 기록해 봅시다.
2.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벨탑의 범죄 이후 생긴 언어 장벽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풀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방언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3.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악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흠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형제자매의 노력은 누가 어떻게 흠으려 할지 생각나는 대로 써 봅시다.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더욱 은사를 계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나를 바꿀 수 있는 분

어느 사회학자의 말이 스무 살이 되면 인생관이 거의 굳어지고, 서른 살이 넘으면 웬만해선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없어!



노름으로 쾌가망신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도 통제가 안되서 미치겠다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터지면 인생역전이야~

어떤 사람은 매일 한숨 쉬고 술만 마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고...



꺼~억! 인생 뭐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의 인생관, 안좋은 습관들, 희망 없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헌있게 살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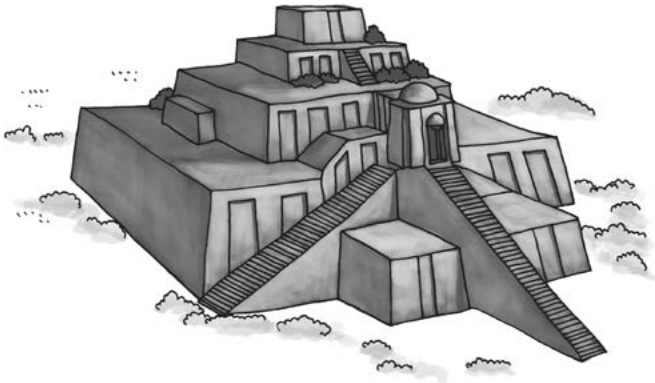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엡 2:3~5)

## 지구라트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과 비슷한 유형의 탑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20여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지구라트는 7층으로 된 계단식 탑으로 그 크기가 큰 것은 아랫변이 122m, 높이는 46.7m 가량이나 됩니다. 바깥쪽은 벽돌로 쌓고 역청을 발랐고 안쪽은 진흙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각 층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 각각은 당시에 알려진 일곱 행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라트가 하늘 숭배의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창 11:4)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라트의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고대 바벨론의 한 서판에는 지구라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 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졌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바벨탑도 이런 지구라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대로 가면서 지구라트의 규모가 작아졌지만 초기의 지구라트는 아주 거대한 규모였을 것입니다.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